

두꺼운 책 말고, 짧은 기사문으로 임팩트 있게!

독해력 기르는 신문 읽기 따라잡기

요즘 종이신문은 잘 안 보게 된다. 인터넷으로 접하는 실시간 뉴스가 더 빠르고 편하다. 하지만 읽기 능력을 기르고 싶은 중학생이라면 종이신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종이신문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독해력·어휘력·배경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통째로 읽는 게 부담스러운 독서 초보라면 짧막한 신문 기사 읽기로 독해력 향상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문 읽기의 좋은 점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아봤다. 신문 잘 읽는 중학생이 전하는 ‘나만의 팁’도 덧붙였다.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22@naeil.com

도움말 오지현 교사(서울 광영고등학교) · 권수경 미디어교육 강사(한국언론진흥재단)

Reader's Letter

“중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지인이 종이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서와 담을 쌓고 지내는 자녀에게 신문이라도 읽히려구 구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서처럼 신문을 읽으면 읽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효과적 인지도 알고 싶어요.” _이지현(46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문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은 학습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독해력은 커녕 기본적인 읽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꾸준히 독서를 하면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지만 문제는 독서를 실천에 옮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을 소화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신문을 읽으면 독해력은 물론 어휘력, 배경지식, 사고력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문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1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독해력이란 글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행간의 숨은 뜻과 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전 과목의 학습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다양한 글을 많이 읽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신문 기사는 정확한 문법과 문장으로 쓰였고, 짧지만 글의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읽기 연습에 제격이다.

서울 광영고 오지현 교사는 “단기간에 읽기와 쓰기의 기본기를 갖추려면 신문 읽기가 효과적이다. 신문 기사는 전체 길이가 길지 않고, 문장이 간결하며 문단 구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긴 글에 대해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

어휘력을 쌓을 수 있다.

어휘력은 각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꼭 필요한 셈이다.

오 교사는 “신문 기사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살아 있는 어휘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 어휘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자성어의 경우도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뜻에 딱 맞게 활용된 사례를 접할 수 있어 한결 쉽게 익힐 수 있다”고 귀띔했다.

3

배경지식을 얻고,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다.

신문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가 풍성하게 실려 있다. 꾸준히 읽으면 배경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신문에서 본 내용 중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책을 통해 심화·확장해나가면 더욱 좋다.

진로 탐색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신문을 읽다 보면 흥미가 끌리는 내용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므로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진로 분야를 찾을 수 있다. 관심 분야의 최신 이슈와 직업 동향에 대한 정보들은 진로 탐색의 깊이를 더해준다.

4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적 논란거리를 다룬 기사나 사설, 칼럼에는 세 상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히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21세기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즉 가짜 뉴스나 기사형 광고 등을 가려내는 안목도 얻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권수경 미디어교육 강사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려면 기사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한다.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의견’은 기사를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한 후 의견 부분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주장을 펼치는 것이 비판적 읽기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STEP BY STEP 신문 읽기 따라잡기

요즘은 신문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라면 종이신문을 구해서 읽는 게 좋다. 기사문에서 중심 문장, 핵심 키워드, 모르는 단어 등을 찾아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을 하면 독해력을 기르는

데 한층 도움이 된다. 기사를 읽고 드는 생각이나 의견 등을 글로 쓰는 사후 활동을 곁들이면 쓰기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사고력 향상도 맛볼 수 있다. 가장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문 읽기 쓰는 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니 따라해보자.

STEP 01

기사 읽기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가볍게 훑어보다가 관심 있는 내용이 눈에 띄면 그것부터 자세히 읽어본다. 종이신문이 없으면 인터넷 기사를 종이에 출력해서 읽는다.

STEP 02

요약하기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주제를 찾는 데 보탬이 된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연결하면 전체 글을 쉽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

STEP 03

어휘와 배경지식 알아보기

모르는 어휘와 배경지식이 될 만한 용어들은 정확한 뜻을 찾아서 손 글씨로 노트에 적어두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다.

STEP 04

느낀 점 쓰기

‘재미있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쓰기보다는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떠오른 생각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다.

STEP 2 사례에 적용하기

6개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①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지난해 4월부터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③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알이백’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④RE100은 읽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3D를 ‘삼디’로, 5G를 ‘오지’로 발음한 적이 있다. ⑥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식견이 듣고 싶었으나 영어 약자 발음을 놓고 신경전만 벌여 실망스러웠다.

분수대

1

RE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석탄 같은 석유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풍력·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뜻하는 단어다.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했다. 애플·구글·인텔 등 340여 개 기업이 동참, 국내에선 2020년 12월 SK를 시작으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지만, 가입 조건이 꽤 까다롭다. 미국 포천이 선정한 1000대 기업 수준이어야 하고 연간 전력 사용량(100GWh 이상) 등을 만족해야 한다. 그간 국내선 RE100에 동참하기 어려웠다. 재생에너지

RE100

지 공급자와 직접 계약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하는 구조여서다. 지난해 4월 공급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렸다.

3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회에 RE100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알이 백(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그게 뭐죠”라고 답했다. 한쪽은 “알이 백도 모르다니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공격하고, 다른 쪽은 “정작 읽는 법도 제대로 모르며 잘난 척”이라고 응수한다.

4 RE100을 읽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영국에선 RE100을 ‘알이 윈 헨드레드’라고 읽는다. CNN 등 주요 외신은 ‘리뉴어블 에너지 윈 헨드레드’로 풀어

보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보도자료에 ‘리 백’이라고 표기했고 하루 뒤인 12일 보도자료에는 ‘알이 백’이라 썼다.

5 비슷한 상황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D(3차원)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 5G(5세대 이동 통신)를 ‘오지’라고 발음했다. 상대 후보들은 “기본적 단어도 읽을 줄 모르다니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6 국민은 영어 약자의 발음이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다. RE100의 존재 이유인 기후 위기라는 인류 공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식견)을 보고 싶을 뿐이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서 경제 용어 발음까지 검색해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다. 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출처 2022년 2월 7일자 (중앙일보) 분수대 RE100

STEP 3 사례에 적용하기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 애플, 구글, 인텔 등 340개 기업이 동참, 우리나라에서는 SK 등 10여 개 업체가 참여. / 재생 에너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 현안: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 / 식견: 학식과 견문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는 말.

STEP 4 사례에 적용하기

TV 토론회를 보지 못했지만 ‘알이백’이 화제에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 뜻이 뭔지,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기사를 읽고 궁금증이 풀렸다. 어렵게 열린 토론회이고 시간 제한도 있는데 사소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들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평소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RE100 동참 기업이라고 하니 내가 가진 제품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MINI INTERVIEW 중학생이 알려주는 신문 읽기 꿀팁!



신문 보면 볼수록
시사 상식·어휘력 상승

김지아
서울 대청중 1학년

Q. 신문을 읽게 된 계기가 있다면?

신문을 즐겨 보는 고1 오빠가 권유해서 1년 전쯤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지식의 사례에 해당하는 일들이 신문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꼭 읽어보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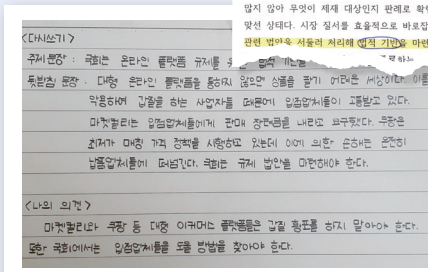
Q. 신문 읽기가 어떤 도움이 됐나?

앞서 다룬 기사 내용이 후속 기사로 이어지고, 어휘도 반복되니까 신문을 보면 볼수록 시사 상식과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평소 별로 관심이 없던 정치나 경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된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Q. 신문 읽기를 잘하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요즘은 사설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잘 읽을 수 있는 팁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글쓴이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앞의 내용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약할 때는 각 문단에서 핵심 키워드 4~5개를 찾아서 표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됩니다. 내 의견을 쓸 때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한 줄로 정리한 후에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김지아 학생의 신문 읽기 사례.
인터넷에서 기사를 출력한 후
키워드에 동그라미, 모르는
어휘에 밑줄, 중심 문장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었다.
출처 2021년 12월 22일자 <한겨레>



김지아 학생의 신문
읽기 시루 활동 사례.
키워드와 중심 문장을 정
리한 후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 쥐어짜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썼다.



경영·경제 분야 관심사
신문 읽기로 깊이 더해

김우찬
서울 역삼중 1학년

Q. 신문을 읽게 된 계기가 있다면?

원래 경제·경영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매일경제>를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1면의 헤드라인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읽고 있어요. 관심 분야의 최신 뉴스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신문 읽는 게 즐겁고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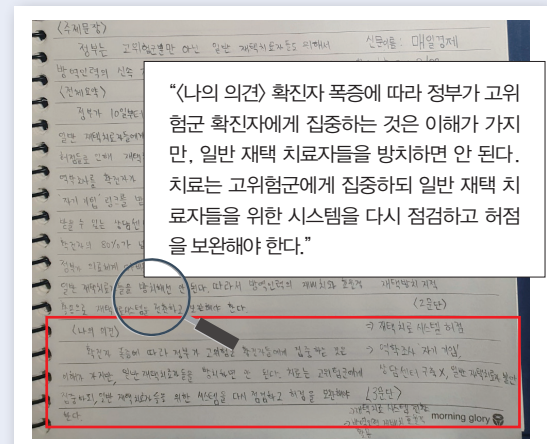
Q. 신문 읽기가 어떤 도움이 됐나?

생소한 내용과 낯선 어휘가 많아 처음에는 신문 보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제 용어와 어휘가 나와도 막힘없이 잘 읽는 편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검색한 후 손 글씨로 어휘 노트에 기록해둔 덕분에 시사 상식과 어휘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Q. 신문 읽기를 잘하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기사를 읽을 때는 제목을 먼저 살펴본 후 핵심 키워드를 찾아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 알면 어려운 글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설의 경우 글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쉬워요. 큰 틀에서 글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면 중간에 어려운 어휘나 문장이 나오더라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

김우찬 학생의 신문 읽기 사례. 종이신문의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가 재택방치인가'를 스크랩해서 노트에 붙이고, 주제 문장 찾기, 키워드 찾기, 전체 글 요약, 나의 의견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출처 2022년 2월 2일자 <매일경제>